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2호 2005년 6월 pp.67~85
한국세무학회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비율관리

박연희*

〈요 약〉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재량권이 높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관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의 검증을 위해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으로 하였으며, 상각(환입)전보고이익(수정보고이익)과 대손충당금환입 전 대손상각비를 산출하여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

분석결과, 대손상각비와 수정보고이익의 관계에 대한 회귀식에서 수정보고이익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통계값으로 나타나서 수정보고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표본의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보고한 상호저축은행도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성이 높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한편 BIS자기자본비율이 전체 표본의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대손상각비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던 제2금융업종인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관리를 검증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이익조정, BIS자기자본비율관리, 재량적 대손상각비, 보고이익하락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E-mail : Parkyh@skku.edu)

I. 서 론

금융기관은 1997년 말 외환위기가 2003년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에 의해 기업들의 부실채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한 회계의 분식은 대외 신인도를 하락하게 만들었다. 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금융기관의 회계분식이 46건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적된 것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의 회계분식은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특히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경영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 왜냐하면 감독원은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류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개념적 정의와 분류 예시만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크게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된다.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권으로 구분되어지며 1972년 신용금고법 제정에 의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상호저축은행도 일반은행들과 마찬가지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7년 환란 당시에 상당수의 상호저축은행들이 간판을 내려야만 했고, 셔터가 내려진 상호신용금고 앞에서 예금을 찾지 못해 당혹해 하는 예금주들의 모습들이 매스컴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이 얼마이며, BIS자기자본비율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지게 되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예금주의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갖게 되었으며, 경영진은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성과 안전성 이미지를 예금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객들에게 안전성의 지표로서 자주 이용되는 것이 이익과 BIS자기자본비율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이 주 고객이다. 고객은 높은 이익의 상호저축은행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은 좋은 이미지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익을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즉, 경영진이 재량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손상각비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락을 막고자 할 것이다.

한편 BIS자기자본비율은 재무건전성 판단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부실 상호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들은 안정적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순위채권발행, 유상증자, 위험자산의 축소 및 수익성 증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익조정을 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금융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이루

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과 BIS자기자본비율 조정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자기자본비율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관리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자의 재량적 항목이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또는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BIS자기자본비율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III절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표본선정과 관련변수의 측정에 대해 기술한다. IV절에서는 기술통계와 실증분석결과를, V절에서는 결론·한계점 및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II.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BIS자기자본비율과 선행연구

1.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BIS자기자본비율

상호저축은행은 「상호금융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100%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채권의 위험에 따른 적정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내의 상호저축은행은 건전성분류에 따른 각각의 대손율 이상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해야한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대상 자산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자산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회수율을 감안하여 분류단계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개별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있어서 경영자는 어느 정도의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표 1>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자 산 항 목		분류대상 여부	비 고
유동자산	현금·예치금	분류대상외	
	대출금	분류대상	
	어음할인	"	
	유가증권	"	시가법 적용대상유가증권은 제외
	기타 유동자산	분류대상외	

자 산 항 목		분류대상 여부	비 고
투자과 고정자산		분류대상외	
고 정 자 산		"	
기타자산	신용카드채권	분류대상	농협 회원조합만신용카드업무 취급
	미 수 금	"	
	가지급금 (여신성가지급금포함)	"	
	기 타	분류대상외	

<표 1>에서 반전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나타내고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정상(Normal), 주의의(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ted loss) 5단계로 분류된다.¹⁾ 5단계로 분류된 자산은 대손충당금 설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표 2>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제시하고 있다.

1)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구분	정의	건전성 분류제외 대상자산
정 상 (Normal)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
주의의 (Cautionary)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을 말한다.	•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 제외) • 신용카드채권
고 정 (Substandard)	현재가치가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여신, 담보여신의 경우 담보가치가 부족한 여신, 채권 보전상 명백한 취약점이 노출된 여신, 유동성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으면서 시정되지 않은 여신, 장차 추정 손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여신 등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 제외) • 유가증권 • 신용카드채권
회수의문 (Doubtful)	완전한 회수나 유동성 회복이 매우 의문시 되어 추정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앞으로 건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신으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손실발생(담보 부족액)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을 말한다.	• 신용카드채권
추정손실 (Estimated loss)	회수불능 또는 무가치화 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상각)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을 말한다.	-

〈표 2〉 대손충당금 설정률

“정 상” 분류채권	0.5% 이상
“요 주 위” 분류채권	2% 이상
“고 정” 분류채권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	75% 이상
“추정손실” 분류채권	100%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정상으로 분류된 채권은 0.5%이상,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은 2%이상, 고정으로 분류된 채권은 20%이상,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은 75%이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부실채권을 건전자산으로 분류 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함으로써 보고이익의 하락을 막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은 3개월 미만의 여신은 “정상”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요주의”로 분류한다. 6개월이 경과한 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수의문”으로,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추정손실”에 속한다. 이러한 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지점 및 출장소 설치에 있어 재무건전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분류시점으로 본 건전성 분류기준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

연체발생		고정이하 분류시점		
		3개월미만	3개월경과	6개월경과
정 상		요주의	고 정(담 보)	
			회수가능성이 조금 있음	회수가능성이 없음
			회수의문(무담보)	추정손실

주: 상호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사례집(2004)에서 발췌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요구가, 3%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조치요구의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1%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 조치명령이 내려져 상호저축은행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을 5%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자본 적정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BIS자기자본비율²⁾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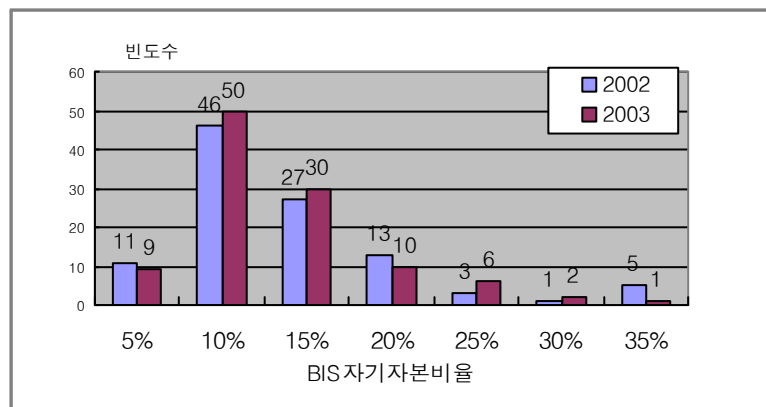
2) BIS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 - \text{공제항목}}{\sum(\text{대차대조표자산} \times \text{위험가중치}) + \sum(\text{부외항목} \times \text{신용환산율} \times \text{위험가중치})} \times 100$$

<그림 1>은 2002년과 2003년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상호저축은행은 2002년 11개사, 2003년 9개사 뿐이었으며, 대부분 5~1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수준인 5%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1>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추이



(주) 빈도수는 표준편차로 조정한 수입

2. 선행연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추정하는 것으로써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익조정에 사용되거나,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업에 관한 이익조정유인은 일반기업과는 다르지만, 일반기업의 이익조정 연구 방법 등을 적용하여 일반은행에서도 대손충당금을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구되었다. 그러나 일반은행과는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같은 금융기관인 은행업에서 대손충당금을 이익조정수단으로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익조정수단으로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익조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연구(McNichols and Wison, 1988; Collins et. al., 1995)와 이익조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내지 못한 연구(Moyer, 1990; Beatty et. al., 1995)들이 혼재되어 있다.

McNichols and Wison(1988)은 총자산수익률(ROA)을 기준으로 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해 보았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조정이 행해짐을 검증 하였다. Collins et. al.(1995)은 유가증권처분손익, 대손충당금설정액, 대손상각비, 배당금 등 7가지 변수에 의해 이익관리, 자본관리, 법인세관리 현상을 검증하였다. 반면, Moyer(1990)는 경영자가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의 설정, 대손상각,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을 조정함으로써 규제관련 비용을 회피하려 한다는 증거를 관찰하였으나 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을 줄이려 한다는 것을 지지하지 못했다. Beatty et. al.(1995)도 대손상각비를 절세수단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최효순(2003)은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축소 또는 증대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고정이자 여신비율이 낮을수록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문현주(2003)의 연구에서도 은행의 경영진들은 당해연도 성과에만 국한했을 때 대손상각비를 재량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재량성이 높은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활용하여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본 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에 미달될 경우 거래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영진은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할 것이다. Chen and Daley(1995)는 캐나다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자본규제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손상각비를 이용하는지를 검증한 연구에서 자본규제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량적 대손상각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and William(1998)은 비율 산정요소 변경으로 인한 미국 은행들의 자본관리 현상을 분석하였다. 자본비율 집단을 상, 하위 집단으로 구분지어 자본관리를 검증한 결과 상위집단에서는 자본관리에 대해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하위집단에서 유의한 결과가 검증되었다.

Moyer(1990) 등과 같은 일부의 연구들이 은행업에서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보고이익의 조정을 지지하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기존연구들은 재량적 항목인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규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재량적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고, 자본비율을 관리 하는지 검증한다. 다만, 기존연구들이 분석대상을 제1금융업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상호저축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업으로서의 투명한 회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의 설정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많은 고객 유치가 상호저축은행의 발전과 사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예전의 상호신용금고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할 수 있겠다. 상호저축은행의 성장은 신뢰성과 안전성에 있다. 신뢰성과 안전성제고는 높은 이자율과 높은 보고이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은 이들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안전성의 지표가 보고이익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높은 이익을 보고하면 안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이 낮으면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보고이익이 낮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재량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손상각비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익조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대손충당금설정액 임을 제시하고 있다.(McNichols, 2000)

이를 본 연구의 상호저축은행에 적용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보고이익이 하락할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여 보고이익 하락을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 보고이익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할 것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재무건전성 판단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부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등 경영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손충당금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즉,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낮춤으로써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이므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호저축은행들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호저축은행은 전년도보다 대손상각비를 적게 설정할 것이다.

2. 표본의 선정 및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재무자료를 추출 가능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정된 표본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표본의 선정

총 상호저축은행 수(년-기업)		523
제거된 표본 수	부도, 파산으로 인해 없어진 상호저축은행	(160)
	재무정보가 부족한 상호저축은행	(20)
	상호가 동일한 상호저축은행	(4)
최종 표본		339
BIS자기자본비율 표본		226

2001년 ~ 2003년 사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재무자료의 추출이 가능한 상호저축은행의 표본 수는 523개이었다. 이중에서 2002년 3월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면서 부도·파산 등으로 제외된 상호저축은행이 160개, 재무정보가 부족한 상호저축은행이 20개, 상호가 동일한 4개를 제외하고 최종으로 선정된 표본 수는 339개이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제가 강화된 2001년부터 자료가 공시되어 있었으나 상호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2002년과 2003년의 자료만 추출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카이스퀘어검증(χ^2)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검증방법으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모형 : } (\Delta)DA_t = a_0 + a_1ADJEE_t + a_2D_{1\sim 2} \times ADJEE_t + \varepsilon_t$$

여기서, DA_t 는 환입등을 고려한 대손상각비 / 총자산

$ADJEE_t$ 는 보고이익에서 수정된 대손상각비를 가산한 수정보고이익

$D(1\sim 2)$ 는 보고이익이 중위수보다 낮은(또는 감소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Δ 는 t년도-(t-1)년도, 즉 변동을 의미함

<모형>에서 t년도 보고이익감소와 대손상각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종속변수 DA_t 는 대손충당금환입을 가산하여 수정하였으며, 독립변수 $ADJEE$ 는 보고이익에 대손상각비를 가산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을 차감하여 수정하였다. 변수 D 는 수정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³⁾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⁴⁾ 본 연구목적은 더미변수 $D \times ADJEE$ 의 계수로써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고이익이 낮거나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한다면 대손상각 전 보고이익(즉, 수정보고이익)이 낮은(또는 감소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할 것이기 때문에 D 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통계적 검증방법으로 카이스퀘어(χ^2)검증을 이용한다. 카이스퀘어(χ^2)검증은 두 변수가 상호독립적인지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보고이익은 안전성의 지표로서 자주 이용되는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상각(또는 환입)전 이익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대손충당금환입액을 조정하여 대손상각비를 수정하였다.

<표 5>는 주요변수들이 산출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 3) 더미변수 D 는 보고이익의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경제적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여하였다. 이러한 더미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영향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분석을 위한 모형에서 상호저축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출채권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무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

〈표 5〉 주요변수와 산출과정

변 수	산 출 식
수정보고이익 _t	$(\text{보고이익}_t + \text{대손상각비}_t - \text{대손충당금환입}_t) / \text{총자산}_t$
Δ 수정보고이익 _t	$(\text{수정된 보고이익}_t - \text{수정된 보고이익}_{t-1}) / \text{총자산}_t$
대손상각비 _t	$(\text{대손상각비}_t - \text{대손충당금환입}_t) / \text{총자산}_t$
Δ 대손상각비 _t	$(\text{대손상각비}_t - \text{대손상각비}_{t-1}) / \text{총자산}_t$

주) 수정보고이익 : ADJEE 대손상각비 : DA

IV. 기술통계와 검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6>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선정된 표본들의 표준화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⁵⁾

〈표 6〉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변수: N = 339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대손상각비	Δ 대손상각비
수정보고이익	-0.003	0.024	0.060	-0.100	0.484***	-
대손상각비	0.016	0.053	0.259	-0.271	-	-
Δ 수정보고이익	-0.206	0.331	0.128	-0.923	-	0.311***
Δ 대손상각비	0.004	0.030	0.113	-1.982	-	-
BIS비율	10.99	10.62	69.75	1.35	-0.131	0.128

(주) 수정보고이익_t = $(\text{보고이익}_t + \text{대손상각비}_t - \text{대손충당금환입}_t) / \text{총자산}_t$

대손상각비_t = $(\text{대손상각비}_t - \text{대손충당금환입}_t) / \text{총자산}_t$

Δ = 변동

5) 주요변수들의 연도별 기술통계량

변수 : N=339	2001년		2002년		2003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정보고이익	-0.004	0.024	0.019	0.025	0.034	0.026
대손상각비	0.006	0.020	0.012	0.019	0.027	0.025
Δ 수정보고이익	-0.655	0.153	0.023	0.032	0.014	0.029
Δ 대손상각비	-0.008	0.033	0.006	0.025	0.015	0.026
BIS비율	-	-	12.69	10.77	12.24	10.48

검증기간동안(2001년~2003년)의 상호저축은행의 표준화된 보고이익은 평균 -0.003 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손상각비는 평균이 0.016 보고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의 수정보고이익이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림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수정보고이익의 변동이 -0.206 , 대손상각비변동이 0.004 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판단 및 감독에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BIS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0.99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3월 1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또 다른 설명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이 불건전한 자산을 건전한 자산으로 분류하였거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수정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상관관계는 0.484 , 수정보고이익변동과 대손상각비변동의 상관관계는 0.311 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BIS자기자본비율과 대손상각비의 상관관계는 -0.131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BIS자기자본비율과 대손상각비변동의 상관관계는 0.128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이익조정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은 보고이익이 하락하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대부분 고객의 예금유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예금 기피는 경영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경영층은 보고이익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이익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특히 금융업에 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부실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나 대손상각비와 같은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항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 하락을 막으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가. 보고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표 7>은 대손상각비와 보고이익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의 <모형1>에서 보고이익의 추정계수는 -0.344 로 음(-)의 값이었으며 t-통계량이 -6.69 로 1%에서 유의하였다. D1의 추정계수는 0.199 로 양(+)의 값이었으며 1.85 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이익이 낮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손상각비변동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2>에서 D2의 추정계수는 0.234 , t-통계값이 2.41 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도 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상호저축은행이 이익감소를 막기 위해 대손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었다. 이는 본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7〉 대손상각비와 보고이익의 분석결과

모형 : $(\Delta)DA_t = a_0 + a_1ADJEE_t + a_2D_{1-2} \times ADJEE_t + \varepsilon_t$

	종속변수가 DA인 모형1	종속변수가 ΔDA 인 모형2
절편	-0.003(-1.42)	-0.003(-3.12)***
ADJEE	-0.344(-6.69)***	-0.016(-0.53)
$D_1 \times ADJEE$	0.199(1.85)*	
$D_2 \times ADJEE$		0.234(2.41)**
F값	15.07	3.59
수정된 R^2	0.453	0.023

* 10%, ** 5%, *** 1% 유의수준

변수정의 :

 DA_t = t년도 대손상각비 $ADJEE_t$ = t년도 수정보고이익 D_1 = t년도말 수정보고이익이 중위값보다 낮은 상호저축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D_2 = 전년도 대비 수정보고이익이 감소한 상호저축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Δ = $t - (t-1)$, 즉 변동

보고이익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은 재량적항목인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보고이익 하락을 막으려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검증방법으로 카이스퀘어(χ^2)검증을 실시하였다. 카이스퀘어(χ^2)검증을 위해서 수정보고이익의 변동액을 산출하여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대손상각비 변동액도 동일한 방법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4개의 그룹별 상호저축은행의 표본은 각 84개~85개이었으며, 각 1그룹은 변수들의 변동액 중에서 가장 낮은 상호저축은행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4그룹은 모두 높은 상호저축은행들로 구성되었다.

<표 8>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눈 상호저축은행의 표준화된 수정 보고이익 변동액과 대손상각비 변동액의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표준화된 Δ 수정보고이익과 Δ 대손상각비1부 : 표준화된 Δ 수정보고이익^{a)}

	1그룹(low)	2그룹	3그룹	4그룹(high)
평균	-0.727	-0.157	0.011	0.049
표준편차	0.079	0.220	0.006	0.022
중위값	-0.732	-0.016	0.011	0.044
최대값	-0.584	0.0009	0.023	0.128
최소값	-0.922	-0.581	0.001	0.024

a) Δ 수정보고이익_t = 수정 보고이익_t - 수정보고이익_{t-1}

2부 : 표준화된 Δ 대손상각비^{a)}

	1그룹(low)	2그룹	3그룹	4그룹(high)
평균	-0.031	-0.001	0.010	0.038
표준편차	0.026	0.004	0.004	0.020
중위값	-0.022	-0.0006	0.010	0.032
최대값	-0.198	-0.009	0.005	0.019
최소값	-0.009	0.005	0.019	0.113

a) Δ 대손상각비^o = 대손상각비_t - 대손상각비_{t-1}
 대손상각비_t = 대손상각비_t - 대손충당금환입_t

<표 8>의 1부에서 표준화된 Δ 수정보고이익은 1그룹과 2그룹에서 -0.727, -0.157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3그룹~4그룹은 0.011, 0.049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중위값도 1그룹과 2그룹이 -0.732, -0.016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3그룹~4그룹이 각각 0.011, 0.044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1그룹과 2그룹의 표본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보고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그룹~4그룹은 증가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부는 표준화된 Δ 대손상각비를 나타내고 있다. 1그룹과 2그룹의 평균 -0.031, -0.001은 전년도에 비해서 Δ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3그룹~4그룹의 평균은 각각 0.010, 0.038이었다.

본 연구목적인 상호저축은행이 보고이익하락을 막기 위하여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Δ 수정보고이익금액 크기에 따라 나누었던 4개의 그룹과 Δ 대손상각비의 크기에 따라 나누었던 4개의 그룹 중에서 각 그룹에 속한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즉, Δ 수정보고이익이 1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Δ 대손상각비가 1그룹~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들을 계산하였다. 또한 Δ 수정보고이익이 2~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Δ 대손상각비가 1그룹~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들의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Δ 수정보고이익과 Δ 대손상각비의 그룹별 빈도수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만약 보고이익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였다면 수정보고이익이 하락된 상호저축은행으로만 구성된 1그룹과 2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에서 Δ 대손상각비도 낮게 보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Δ 수정보고이익이 하락한 그룹인 1그룹과 2그룹에서 Δ 대손상각비가 낮아 1 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35, 26개인 반면 Δ 대손상각비가 높은 3그룹과 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은 7, 17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다. 한편, Δ 보고이익이 가장 높은 4그룹에서 Δ 대손상각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은 10개에 불과했으며, Δ 대손상각비가 높은 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은 32개나 되었다.

〈표 9〉 수정 △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그룹별 빈도수

△대손상각비 △수정보고이익		1(low)	2	3	4(high)	합계
하락그룹	1(low)	35	21	19	10	85
	2	26	18	23	18	85
증가그룹	3	7	29	25	24	85
	4	17	17	18	32	84
합 계		85	85	85	84	339

각 그룹별 보고이익에 따라서 대손상각비의 보고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χ^2)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검증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수정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χ^2 검증결과

Statistic	Value(값)	Prob(확률값)
χ^2	38.435	<.0001

분석결과, χ^2 검증 통계값이 57.99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는 그룹별 보고이익에 따라서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는데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⁶⁾

3.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호저축은행은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수행하였다. BIS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중위값보다 큰 경우는 상위그룹으로, 낮은 상호저축은행은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대손상각비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대손상각비가 가장 낮은 상호저축은행은 1그룹에 속하며, 가장 높은 상호저축은행은 4그룹에 속한다. 이들 각 그룹별 기술 통계량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6) 수준변수인 수정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χ^2 검증결과도 △수정보고이익과 △대손상각비의 검증결과와 다르지 않았으며 검증결과, χ^2 통계값이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Statistic	Value(값)	Prob(확률값)
χ^2	94.648	<.0001

〈표 11〉 BIS자기자본비율과 Δ 대손상각비

	BIS자기자본비율		Δ 대손상각비 ^{c)}			
	하위그룹 ^{a)}	상위그룹 ^{b)}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표본수	56	57	28	28	28	29
평균	6.482	17.716	0.052	0.064	0.050	0.051
표준편차	2.192	12.466	0.030	0.034	0.033	0.030
중위값	6.790	13.330	0.046	0.061	0.039	0.047
최대값	9.420	80.290	0.144	0.151	0.118	0.139
최소값	-4.030	9.550	0.014	0.017	0.015	0.0003

a) BIS자기자본비율이 중위값보다 낮은 상호저축은행

b) BIS자기자본비율이 중위값보다 높은 상호저축은행

Δ 대손상각비^{c)} = 대손상각비_t - 대손상각비_{t-1}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저축은행이 Δ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그룹에 속하면서 Δ 대손상각비가 1그룹~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Δ 대손상각비가 1그룹~4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들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BIS자기자본비율과 Δ 대손상각비의 크기에 따라 산출된 빈도수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BIS자기자본비율과 Δ 대손상각비 그룹별 빈도수

Δ 대손상각비 BIS자기자본비율	1(low)	2	3	4(high)	합계
하위그룹	13	18	14	11	56
상위그룹	15	10	14	18	57
합 계	28	28	28	29	113

BIS자기자본비율과 Δ 대손상각비의 그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저축은행(하위그룹)에서 Δ 대손상각비를 전년도에 비해 적게 보고한 경우가 13, 18이었고, Δ 대손상각비를 많이 보고한 경우는 14, 11이었다. 반면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저축은행(상위그룹)에서 Δ 대손상각비를 전년도에 비해 많이 보고한 상호저축은행은 14, 18이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저축은행(상위그룹)에서 Δ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한 상호저축은행은 15, 10개였다. 즉, 그룹별 BIS자기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상각비의 보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저축은행이 Δ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χ^2 검증 통계값이 4.1097로 유의하지 않아 낮은 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는지에 대한 유의적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의적인 차이를 밝혀내지 못한 결과는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영정상화 차입금을 지원받게 되면 보완자본 인정액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될 수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들 중에는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대출규모를 줄이게 되면 내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은 나빠지지만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자산의 가중치가 낮은 현금 등을 확보하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즉, △대손상각비 이외에 여러 변수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표 13〉 BIS자기자본비율과 △수정대손상각비의 χ^2 검증결과

Statistic	Value(값)	Prob(확률값)
χ^2	4.1097	<.249

V. 결론 · 한계점 및 연구방향

금융기관의 회계분식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특히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경영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 금융기관은 감독원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조정하거나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에서 안전성의 지표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 이익과 BIS자기자본비율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고객들은 높은 보고이익의 상호저축은행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것이며, 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은 부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진들은 좋은 이미지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익을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재무건전성 판단의 주요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BIS자기자본비율은 5% 미만이면 여러 가지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안정적인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인을 가질 것이다.

즉,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진들이 재량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대손충당금 적립을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중 상호저축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관리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000년 ~ 2003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추출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339개로 선정되었다. 이익조정과 관련된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하였으며, BIS자기자본비율관리를 위해서는 2002년과 2003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정보고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고 있었다. 한편, 수정보고이익이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중위값보다 낮은 상호저축은행도 대손상각비를 낮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IS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중위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전년도보다 적게 보고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손상각비 이외에 여러 변수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대손상각비 이외의 많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손상각비만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과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BIS자기자본비율 또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향후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제2금융업종인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을 검증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법규집』 2004
- 문현주. 2004. “대손상각을 이용한 은행의 이익관리”, 회계학연구(제29권 제2): 111-131.
- 최효순. 2003. “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 조정과 주가반응”, 증권학회지(제32집1호): 35-70.
- Ahmed, A., C. Taketa, and S. Thomas, 1999. Bank Loan Loss Provisions: A Reexamination of Capital Management, Earnings Management and Signaling Effec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833-874
- Beatty, A., S. Chamberlain, and J. Magliolo, 1995.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 the Influence of Taxes, Regulatory capital, and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33:2): 231-261
- Chen P., and L. Daley, 1995. Regulatory Capital, Tax, and Earnings Management Effects on Loan Loss Accruals in the Canadian Banking Industr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13:1): 91-128
- Collins, J., D. Shackelford and J. Wahlen, 1995.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33:2): 263-291
- Kim, M. and P. Wilson, 1988.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rovision for bad deb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26): 1-31
- Moyer, S. E. 1990.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Accountion Economics*: 123-154
- McNichols, M. and Wison, G., DeAngelo, L., 1988.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provision for Bad deb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Supplement): 1-31
- McNichols, M. 2000. Research design issues in earnings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 313-345

Earnings Management by Mutual Saving Banks Using Bad Debt Expenses and/or Loan Loss Provisions

Yeon-Hee Park*

—<Abstract>—

Customers and deposits are very important for a bank's survival. This is why mutual saving banks would not want to report earning decreases which may damage their external credit worthines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banks to keep a certain level of BIS capital adequacy ratio which is a major factor check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Board for the credit worthiness of mutual saving banks.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the mutual saving banks to manage their reported earnings and BIS capital adequacy ratio by making use of their accounting discretion.

Most mutual saving banks have some discretion in recording bad debt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mutual saving banks manage their reported earnings and BIS capital adequacy ratios by adjusting bad debt expenses and/or loan loss provi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utual saving banks report smaller bad debt expenses if their current year's profits is smaller than prior year's or if it is below average. However, this study could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mutual saving banks, which have lower BIS capital adequacy ratio comparatively, will report smaller loan loss provisions.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our knowledge in that it provides some evidences that mutual savings banks could pursue earnings management using loan loss provisions.

<Key Words> Earnings management, BIS capital adequacy ratio, Loan loss provisions

*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E-mail : Parkyh@skku.edu)